

공선출하 혁신...멜론 넘어 블루베리까지 '소득농업' 확장

현장리포트 선도농업을 가다

곡성농협

삼진강을 따라 흐르는 맑은 물과 비옥한 토양 위에 자리한 전남 곡성. 이곳 농업은 오랜 시간 축적된 재배 기술과 자연 조건이 결합되며 전국 최고 수준의 품질을 자랑하는 농산물을 길러내 왔다. 그 중심에는 40년 넘게 이어져 온 멜론 산업이 있다.

시설하우스를 기반으로 한 곡성 멜론은 지역 농가의 자부심이자 소득을 떠받치는 핵심 작목으로 성장해 왔고, 곡성농협은 이를 조직화하고 체계화하는 과정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왔다.

곡성농협이 멜론 산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것은 2000년대 초반 공동선별 체계를 도입하면서부터다. 이전까지 개별 농가 중심으로 이뤄지던 출하 방식은 품질 편차와 가격 변동성이라는 한계를 안고 있었지만, 공동선별을 통해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면서 시장 신뢰도를 높이기 시작했다. 여기에 2015년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가 준공되면서 선별과 유통 시스템은 한층 고도화됐다. 농가에서 생산된 멜론은 APC를 통해 엄격한 품질 기준을 거쳐 선별되고, 이를 바탕으로 농협 유통망뿐 아니라 전국 대형 유통업체로 공급되면서 브랜드 가치가 빠르게 상승했다.

곡성농협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2020년부터는 단순한 공동선별을 넘어 전속출하조직으로 체계를 전환하며 출하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했다. 개별 농가의 자율 출하에서 벗어나 조직 중심의 계획 출하를 도입하면서 물량 조절과 가격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현재 130여 농가가 참여하고 있는 이 조직은 출하 물량을 집중시키고 시기를 조정함으로써 시장 대응력을 높였고, 그 결과 2024년 50억원, 지난해 59억원 규모의 출하 실적을 기록하며 농가 소득 증대에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냈다.

이러한 변화는 결국 제도적 성과로 이어졌다.

지난 2022년 곡성 멜론은 멜론 품목으로는 전국 최초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리적표시제 인증을 획득했다. 특정 지역의 자연환경과 생산 방식이 결합된 고유한 품질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곡성 멜론이 단순한 지역 특산물을 넘어 전국 대표 농산물로 자리매김했음을 의미한다. 이는 생산 농가의 오랜 경험과 기술, 그리고 이를 조직화한 농협의 전략이 결합된 결과였다.

그러나 곡성농협 APC는 운영 구조상 또 다른 과제에 직면해 있었다.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의 팔기 공동선별을 진행하고, 이후 유통기를 거쳐 5월 중순부터 멜론 출하로 이어지는 구조였지만, 노동집약적인 팔기 재배농가가 줄어들면서 공동선별 물량이 감소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따라 유통기간 문제와 함께 기존 작목을 보완할 새로운 소득 작목 발굴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때 주목한 것이 블루베리였다. 블루베리는 당시까지 곡성에서 20ha 이상 재배되고 있었지만, 대부분 공판장 중심의 개별 출하에 머물러 있었다. 반면 시설 가온재배를 통해 2~3월 조기 수확이 가능하고, 노지 재배 물량이 이어지는



곡성농협은 최근 고달만개마을 숙소에서 공공형 리아스 계절근로자 대상으로 전통놀이 체험을 실시했다.

사진제공=곡성농협

멜론 산업 전국 최초 지리적표시제 획득...농가 소득 증대 블루베리 공선출하 4년 만에 5배 성장...신소득 작목 안착 스마트농업 도입...‘생산·유통·기술 결합’ 농업 모델 구축

6월까지 생산 조절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장기간 계획 출하가 가능한 작목이라는 장점이 있었다. 곡성농협은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블루베리를 공선출하 품목으로 조직화하기에 적합한 작목으로 판단했다.

지난 2022년 농협과 행정, 농가가 함께 블루베리 공선출하회를 출범시키면서 변화는 시작했다.

초기에는 17농가, 29t 규모에 불과했지만, 조직화와 협업을 기반으로 빠른

했다. 흡소평과 라이브커머스, 인터넷 쇼핑, 대형마트 납품, 직거래 장터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판매를 확대하면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고, 안정적인 판로를 기반으로 농가의 생산 의욕도 높였다. 생산은 농가가, 판매는 농협이 책임지는 역할 분담 구조가 명확하게 정착되면서 공선출하 체계의 효율성이 극대화됐다.

조직 내부의 운영 방식 또한 눈에 띈다. 공선출하회는 단순한 출하 조직을 넘어 학습 공동체로 기능하고 있다. 회원 농가 가운데 우수 사례를 롤모델로 선정해 재배 기술을 공유하고, 품질 기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방식으로 전체 농가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있다. 매년 사업설명회와 평가회를 통해 성과를 점검하고 개선점을 도출하는 과정 역시 조직의 지속적인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곡성농협은 기후변화와 노동력 부족이라는 농업의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농업 도입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해에는 농협경제지주와 곡성군과의 협력을 통해 멜론 농가를 대상으로 보급형 스마트팜을 지원했다. 이 시스템은 스마트폰과 통합제어기를 활용해 비닐하우스 개폐를 자동화하고, 온풍기와 환기팬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한 환경센서와 CCTV를 통해 온도과 습도, 강우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농가의 노동 부담을 줄이면서도 생산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곡성농협은 올해 이러한 스마트팜 시스템을 블루베리 공선출하 회원까지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단순한 기술 보급을 넘어 공선출하 조직과 스마트농업을 결합해 보다 정밀하고 효율적인 생산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게 성장했다. 출하회 원 간에는 재배 기술과 정보를 공유하고, 농협은 선별과 판매를 전담하며 행정은 시설과 장비, 기술 지원을 뒷받침하는 구조로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다.

한 참여 농가는 “예전에는 재배를 받기 어려웠지만, 지금은 출하 시기와 품질이 맞춰지면서 가격이 안정됐다”고 말했다. 그 결과 지난해에는 41농가가 참여해 94t, 29억3000만원 규모로 확대됐다. 올해에는 54농가, 150t, 45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불과 4년 만에 출하 규모가 비약적으로 증가하며 블루베리는 곡성의 새로운 고소득 작목으로 자리 잡았다.

이 같은 성장은 단순한 물량 증가에 그치지 않는다. 곡성농협은 기존 멜론 유통에서 축적한 경험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블루베리 판로를 다각화

인터뷰 김완술 곡성농협 조합장

“현장형 혁신으로 농가소득 견인”

“곡성군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구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입니다. 앞으로 5년, 10년 뒤 농업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김완술 곡성농협 조합장은 지역 농업의 현실을 이같이 진단했다. 생산 기반을 떠받치던 농업 인구가 빠르게 줄어드는 상황에서 기존의 방식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농업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위기의식이 깔려 있다.

그는 취임 이후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고, 현장 중심의 해법 마련에 집중해왔다.

김 조합장은 “곡성은 삼진강을 끼고 있어 시설하우스를 중심으로 딸기와 멜론, 수박 등을 재배하는 농가가 많은 지역”이라면서도 “농업 인구의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재배 농가 수와 규모가 동시에 줄고 있는 만큼, 부족한 일손을 보완하고 효율적인 경영 방안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짚었다.

이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추진된 것이 품목 다변화와 유통 구조 개선이다. 그는 “멜론 농가 조직화에 성공한 경험을 토대로 농가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대체 품목으로 블루베리를 선택했다”며 “기존 공판장 중심의 개별 출하 구조를 공동선별 체계로 전환하는 데 주력해왔다”고 설명했다. 생산과 출하 방식을 함께 바꾸지 않으면 소득 구조 개선도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농촌 현장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히는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적극 도입했다.

김 조합장은 “2024년 리아스 계절근로자 30명을 도입해 곡성 지역 농가에 인력을 지원했고, 현장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며 “지난해에는 20명이 투입돼 2259명의 일손을 보태면서 약 1억원의 인건비 절감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2022년에는 블루베리 공선출하회를 조직했고, 2025년에는 40여 농가가 참여해 약 3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말했다.

농가 소득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로는



산지유통센터(APC)를 뽑았다.

김 조합장은 “2015년 APC 개장을 통해 농가는 생산에 집중하고 선별과 판매는 농협이 맡는 구조를 구축했다”며 “2025년 기준 멜론 85억원, 블루베리 30억원 규모의 출하가 이뤄지고 있고, 참여 농가와 매출 모두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고령 농가에 대한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그는 “유리온실 육묘장을 통해 시설하우스 농가에 모종을 공급하고, 친환경 비육묘사업과 RPC 운영을 통해 소농의 노동 부담과 비용을 줄여왔다”며 “매년 400여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등 복지 지원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농촌왕진버스 사업을 통해 항방진료를 포함한 종합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 밀착형 복지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래 농업을 위한 대응 과제로는 청년 농업인 육성도 강조했다. 김 조합장은 “농촌형 농업인 양성을 위한 청년농업인 육성과 스마트농업 확산을 제시했다. 김 조합장은 “멜론 농가에 도입된 스마트팜을 올해는 블루베리 농가까지 확대할 계획”이라며 “청년 조합원 비율이 6% 수준에 그치는 만큼 청년위원회를 구성해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농업을 둘러싼 경영 환경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그는 “인구 감소로 농협을 이용하는 지역 인구 자체가 줄어드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며 “유가 상승과 농자재 수급 불안, 경기 침체까지 겹치면서 농업 여건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조합장은 “농촌형 농업인 양성에 안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다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 하나로마트 사용 제한과 같은 제도는 실제 생활과 괴리가 있는 만큼,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보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곡성농협은 지난해 3월 본점에서 공공형 리아스 계절근로자 인력 환영식을 가졌다.

사진제공=곡성농협